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대다수 지역별 GDP 전국 평균 수준 상회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대비 5.3% 성장한 29조 6,299억 위안(한화 약 5,642조 원)으로 집계
- 4월 26일까지 29개 지역에서 1분기 GDP를 공개, 이 중 16개 지역의 GDP 성장률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 8개 지역의 GDP 성장률은 6.0% 이상 달성
- GDP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지린성(6.5%), 장쑤성·충칭시·저장성(6.2%), 후베이성·쓰촨성(6.1%) 등, 낮은 지역은 칭하이성(3.6%), 하이난성(3.3%), 광시성(3.1%) 등. 지린성은 자동차, 철도, 문화관광 서비스업 등 분야가 비교적 빠르게 성장, 반면 광시성은 1분기 부동산 투자가 21.3% 감소하여 GDP 성장률에 영향
- 최근 중국은 문화관광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 1분기 서비스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55.7%에 달함. 지린성은 동계스포츠의 인기에 힘입어 1분기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95.4% 897.9% 급증, 관광 수입은 각각 107.1%, 842.2% 증가, 윈난성은 1분기 관광업의 고정자산 투자가 59.4% 증가함
- 한편 중국의 1분기 첨단기술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10.8%, 12.7% 증가하여 전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6.3%p, 8.2%p 상회. 산시성(陝西)의 경우 신에너지차, 광자(光子, Photon), 태양광발전, 반도체·집적회로 등 전략적 신산업을 적극 육성 중
- 4월 29일 기준 GDP 규모 1조 위안(약 190조 원) 이상인 21개 도시가 1분기 GDP를 발표, 이 중 14개 도시의 GDP 성장률은 전국 평균 성장률(5.3%)을 상회, 쑤저우시는 7.9%의 성장률로 1위 차지
- 1분기 GDP를 보면 충칭시가 6.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광저우시를 추월, 닝보시가 3,992억 위안(약 76조 원)의 GDP로 텐진시를 추월

〈주요 지역별 1분기 GDP 현황 (4/29 기준)〉

NO.	도시명	1분기 GDP (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NO.	도시명	1분기 GDP (억 위안)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
1	상하이	11,099	5.0%	12	칭다오	3,744	5.9%
2	베이징	10,581	6.0%	13	우시	3,584	6.8%
3	선전	8,315	6.4%	14	정저우	3,538	6.2%
4	충칭	7,232	6.2%	15	난통(南通)	2,982	7.2%
5	광저우	7,161	3.6%	16	지난	2,849	5.3%
6	쑤저우	5,549	7.9%	17	둥관	2,753	5.5%
7	청두	5,518	5.0%	18	푸저우	2,673	6.3%
8	항저우	5,112	5.1%	19	취안저우(泉州)	2,610	7.2%
9	우한	4,532	5.6%	20	옌타이	2,378	6.1%
10	닝보	3,992	5.6%	21	창저우(常州)	2,269	5.0%
11	톈진	3,890	5.3%	-	-	-	-

*출처 : 지역별 통계국

자료원 : 중국상보망, 신경보

<https://www.zgswcn.com/news.html?aid=182201>

<https://www.bjnews.com.cn/detail/1714378560129699.html>

2 中, ‘2024년 중관촌 포럼(4/25~29)’ 베이징시서 개최

- 최근 ‘2024 중관촌 포럼(4/25~29)’이 베이징시에서 개최되어 10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과학 기술 분야 관계자가 참석함. 동 포럼은 2007년부터 개최, 현재 국내외 혁신 기술 및 제품 전시와 업계 교류를 위한 중요한 창구로 자리매김
- 중관촌 지역의 기술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2023년 베이징시에 신설된 과학기술 기업은 총 12.3만 개사에 달함. 샤오미(小米)도 중관촌에서 탄생한 기업으로, 현재 샤오미의 베이징시 남부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에서는 불과 76초 만에 SU7 차량 1대를 생산, 베이징시 북부에 위치한 스마트폰 공장에서는 1분이면 스마트폰 1대를 생산함
- 중관촌은 ‘중국의 실리콘 벨리’로 불리며 바이두, 샤오미, 하이보스창(海博思创, 배터리업체), 즈푸화장(智谱华章, AI업체) 등 유명기업들이 탄생하였고, 중관촌국가자주혁신시범구(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 488km²)에 소재한 기업의 매출 총액은 2014년 3.6조 위안(한화 약 686조 원)에서 2023년 8.6조 위안(약 1,639조 원)으로 성장
- 한편 올해 ‘중관촌국제첨단과학기술대회(中关村国际前沿科技大赛)’에는 75개 국가(지역)의 기업(팀) 약 3,100개 사가 참가, 전체 프로젝트 중 국제 프로젝트가 40% 이상을 차지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4-04/29/c_1310773114.htm

3 中, 유니콘 기업 360개 사로 증가

- 2024년 중관촌 포럼 기간(4/25~29)에 개최된 ‘글로벌 유니콘기업 포럼(4/28)’에서는 ‘중국 유니콘 기업 발전 보고서(2024년)’를 발표
 - * 유니콘(Unicorn) 기업 :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중국의 유니콘 기업은 총 369개 사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의 뒤를 이었고, 기업별 평균 가치는 38억 달러로 집계
- 기업 수 기준 5대 분야는 인공지능(52개 사), 집적회로(45개 사), 의약·헬스(39개 사), 신 소비(37개 사), 정보서비스(35개 사)로 전체 기업의 56.4%를 차지. 평균 기업가치 기준 3대 분야는 인공지능, 핀테크, 전자상거래로 각각 67.6억 달러, 65.7억 달러, 61.9억 달러로 집계. 베이징시 유니콘 기업은 114개로 전국 1위이며, 최근 1년간 25개 사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
- 이번 선정된 유니콘 기업은 주로 AI 언어모델, 양자 과학기술, 우주항공, 합성생물학, 친환경·저탄소 등 분야

자료원 : 베이징상보

<https://www.bbtnews.com.cn/2024/0429/513213.shtml>

4 中, 2023년 레저식품 상장사 실적 양호

- 4월 27일까지 중국 본토 A주 시장(상하이 및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레저식품 기업 21개 사 중 19개 사가 2023년 연간보고서를 발표, 이 중 하오상니(好想你) 1개 사만 손실 기록. 19개 사의 2023년도 매출 총액은 648억 위안(한화 약 12조 원), 순이익 총액은 47억 위안(약 8,961억 원)으로 집계
- 매출 1위인 량핀푸즈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감소, 매출은 전년 대비 14.8% 감소한 80.5억 위안(약 1.5조 원), 순이익은 46.3% 감소한 1.8억 위안(약 343억 원)임. 볏은 견과류, 말린·절임 과일, 육류 간식, 캔디·케이크 등 제품 매출이 모두 감소
- 귀타이쥘안(国泰君安)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20년부터 레저식품 매장의 확장세가 가속화 되었다고 밝히며, 2023년 연말 기준 전국 레저식품 매장은 2만 개를 돌파, 2024년에는 약 3만 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

〈중국 레저식품 분야 19개 상장사 2023년 매출 및 순이익〉

No.	기업명	매출 (억 위안)	순이익 (억 위안)	No.	기업명	매출 (억 위안)	순이익 (억 위안)
1	량핀푸즈(良品铺子)	80.5	1.8	11	웬주주식(元祖股份)	26.6	2.8
2	산즈송수(三只松鼠)	71.1	2.2	12	진자이식품(劲仔食品)	20.7	2.1
3	차차식품(洽洽食品)	68.1	8.0	13	황상황(煌上煌)	19.2	0.7
4	타오리베이커리(桃李面包)	67.6	5.7	14	간위안식품(甘源食品)	18.5	3.3
5	광저우주자(广州酒家)	49.0	5.5	15	하오상니(好想你)	17.3	-0.5
6	예진푸즈(盐津铺子)	41.2	5.1	16	시마이식품(西麦食品)	15.8	1.2
7	라이이펀(来伊份)	39.8	0.6	17	유우식품(有友食品)	9.7	1.2
8	즈옌식품(紫燕食品)	35.5	3.3	18	구이파상(桂发祥)	5.0	0.6
9	난차오식품(南侨食品)	30.8	2.3	19	칭다오식품(青岛食品)	4.9	0.9
10	헤이즈마(黑芝麻)	26.8	0.4	-	-	-	-

*출처 : 기업별 2023년 연간재무제표

자료원 : 신경보

<https://www.bjnews.com.cn/detail/1714382238129851.html>

5 中, ‘2024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4/25~5/4)’ 개막

- 4월 25일 ‘2024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제18회, 4/25~5/4)’가 개막, 전시회 면적은 22만 제곱미터로 국내외 자동차 업체 1,500여 개 사가 참가, 전시회 기간 중 117대의 차량이 세계 최초로 출시될 예정
- 이번 전시회에서 광치(广汽), BMW(宝马), 폭스바겐(大众), 샤오펑(小鹏) 등 기업들이 다양한 모델을 선보였고, BMW 그룹은 랴오닝 선양(沈阳) 자동차 생산공장에 200억 위안(한화 약 3.8조 원)을 투자하여 신시대(新世代) 차량 모델을 2026년부터 양산할 계획을 밝힘
- 광치아이안(广汽埃安, 광저우자동차그룹 산하 신에너지차 브랜드), 지리인허(吉利银河, 지리 그룹 산하 고급 신에너지차 브랜드)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할 차량 모델을 출시, 지리와 볼보가 공동 출시한 브랜드인 링커(领克)는 글로벌 시장 모델인 ‘링커 09 MHEV’을 전시
 - 광치아이안은 동남아 시장에 최초 진출하여 현재 태국 시장 점유율은 11.8%에 달하며,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 향후 유럽,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 지역에 잇따라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
- 업계 전문가는 중국산 브랜드 자동차 기업의 해외 생산은 여전히 시작 단계로 글로벌 일류 기업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변혁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제언
- 중국자동차연합회에 따르면 4월 상순 중국의 신에너지차 침투율(판매된 신차 중 신에너지차의 비중)은 50.4%로 상승, 신에너지차 구매량이 연료차 구매량을 최초 추월

<2024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 현장 사진>



▲ 지웨이(极越) 신차



▲ 지커(极氪) MIX

자료원 : 중국경제망, CRI

http://www.ce.cn/xwzx/gnsz/gdxw/202404/29/t20240429_38986881.shtml

<https://auto.cri.cn/2024-04-29/739d48e5-bace-b4a1-88c6-e9f73d7a59c9.html>

6 中, ‘제32회 선전 선물용품·홈데코 전시회(4/25~28)’ 개최

■ 4월 25일 ‘제32회 선전 선물용품·홈데코 전시회 및 1688상가 전시회(4/25~28)’가 광둥성 선전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전시회 면적은 26만 제곱미터로 약 5,500개 기업의 8,000여 개 제품을 전시

- 전시회 방문객은 선물용품 유통회사, 광고회사 등 일반 바이어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라이브방송 인플루언서, 개인 트래픽(私域流量) 바이어도 포함
- 이번 전시회는 알리바바 산하 ‘1688 플랫폼(1688.com,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1688 플랫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종사자 대상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우수 생산공장 제품 1,000점을 집중 전시함

<제32회 선전 선물용품·홈데코 전시회 모습>



치신문창(齐心文创) : 2023년 설립, 산해경(山海经), 우황모(吾皇猫), 선판나오(神烦鸟) 등 IP 보유



취상위안(咀香园) : 1918년 설립, 아몬드 전병, 광동식 월병 등 생산

자료원 : 중국상보망, CRI

<https://www.zgswcn.com/news.html?aid=181979>

<https://baijiahao.baidu.com/s?id=1797632504441387638&wfr=spider&for=pc>